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를 하라

### (시편 122:1-9)

##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 (Psalm 122:1-9)

본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This psalm is the third psalm of ascents for people to sing, as they ascend to the temple.

### 1.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유대인의 도시가 되었고, 정치적 종교적 수도가 되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또는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시편은 예루살렘을 3가지로 봅니다. 문자적으로 지상의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상이고 추억이며, 상징적으로는 교회를, 예언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 1. Ascending to Jerusalem

This fact that Jewish people love Jerusalem cannot be compared with anything else. It was at the time of King David that Jerusalem became a Jewish city, a political and religious city.

In this psalm, Jerusalem is described as a holy city or a heavenly castle town. The psalm describes Jerusalem with three points. This Jerusalem on earth is an ideal, reminiscing King David, symbolically representing the church, and prophetically anticipating a new Jerusalem.

### 2. 지상의 도시

지상의 예루살렘은 앞으로 올 하늘 도성의 유약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예루살렘 앞에 서있는 시인은 다음의 세 가지, 곧 잘 짜여진 성읍의 통일성, 예루살렘의 공의성, 예루살렘의 평화로 예루살렘을 표현합니다.

### 2. The city on earth

The Jerusalem on earth is only a weak representation compared to the heavenly castle town. However, this Jerusalem is still cause for the pilgrim to rejoice in his own mind. The psalmist stands at the gate of Jerusalem, expressing Jerusalem in three ways: its unity, its justice, and the need for peace,

### 3. 우리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 고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듯,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공의가 실천되고 조용히 일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 3. Our Jerusalem, the church

Just as Jerusalem was for ancient Israel, so Jesus Christ's church is for us. Our Jerusalem is a place where justice will be worked out. Through Jesus Christ's redemptive death, God declares that we are righteous. God's church is not only a place where justice is served for God's people, but also for society.

우리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교회에서 전쟁은 끝나야 합니다. 빌립보교회에서 다투던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했듯이 교회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How many times have we prayed for our Jerusalem? The warfare in the church has to stop. As the apostle Paul said to those struggling with each other in the Philippian church, "I plea with Euodia and Synthiche to agree each other in the Lord." We should attain peace.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늘의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아직도 목표점에 도착하지 않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Conclusion

We still look towards the heavenly Jerusalem which is coming. Pilgrims have not yet reached this objective destination. In the meantime, we should keep our eyes on the foundation of the heavenly castle that God is planning and building

요한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이 그 성에 있고 생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이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기쁨과 영원한 보호를 성경적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한편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In the book of Revelation written by the apostle John, we look forward to the holy city, a new Jerusalem which will come down from heaven. From this Jerusalem, the living water flows from God's throne. This is not an ideal, but the reality of our future. The Bible, on the one hand, records biblical history and depicts the glory, joy, and eternal protection of God's people in things like the earthly Jerusalem. On the other hand, it uses symbolism to reveal our future reality, the heavenly Jerusalem.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다”(유 1:24).

Jude says in the New Testament,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and to present you before his glorious presence without fault and with great joy..."(Jude 1:24).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교회의 평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By looking forward to the new Jerusalem and embracing the Lord in our heart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attain the peace of the church in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군 선교사 추가 파송

## 11월22일 교회설립기념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서울교회는 군 선교사 3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11월22일 교회설립기념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장로임직식과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한다. 이번에 파송되는 선교사는 지난 연초에 선발된 해외파송선교사 10명과 새로 선발된 군 선교사 3명으로 이번에 선발된 군 선교사들은 대한민국 군목 수의 절대부

족으로 인해 군목(군 선교사)이 필요한 군부대에 민간인 사역을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훈련시켜 한국군선교연합회가 파송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교회가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새로 선발된 3명의 군 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추수의 목사(1951. 3.10)**  
계명대 응용미술과 졸업  
영남신대 졸업  
장신 신대원(목연과) 졸업  
늘푸른교회(진주노회) 부목사



**노신애 목사(1952. 3.10)**  
단국대 가정학과 졸업  
장신 신대원 졸업  
장신 목회학박사(맥코믹신학대학 공동) 수료  
부산 이시벨 여중 교목



**이금순 목사(1958. 7.16)**  
서울 장신대 졸업  
장신 신대원(목연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 교육과 졸업  
숭실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행복한 교회 담임

# 수능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

## 11월 12일 (목) 오전 8시 30분부터 - 501호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11월 12일 (목)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501호실에서 있다.

믿음으로 시간 시간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귀한 응답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이번 수능기도회는 수능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될 것이다.

주변에 수능 학생 학부모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바란다.

### <수험생을 위한 공동 기도제목>

1.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2.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공부한 내용 잘 생각나게 하시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며,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3.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4.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진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5.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 <수능시간표 및 담당 교역자>

교시	시험영역	시험시간	기도회 인도	찬양인도
1	언어	08:40~10:00(80분)	박노철 목사	장석남 목사
2	수리	10:30~12:10(100분)	한상은 목사/노현상 목사	황 광 목사
3	외국어(영어)	13:10~14:20(70분)	서명철 목사	박종민 목사/장석남 목사
4	사회/과학/직업탐구	14:50~16:56(126분)	문정훈 목사/유문건 목사	황 광 목사
5	제2외국어/한문	17:25~18:05(40분)	정수길 목사	박종민 목사

# 2010년도 신임 서리집사 교육 및 면접

## 첫 교육 - 11월 14일(토) 오후 7시 - 501호

구분	일시	장소
교육	(1) 11/14(토) 오후 7시	501호
	(2) 11/20(금) 오후 7시	
	(3) 11/21(토) 오전 6시 15분	
	(4) 11/21(토) 오후 7시	
당회원 면접	(1) 11/14(토) 오후 7시 45분	남-603호 609호
	(2) 11/20(금) 오후 7시 45분	여-602호 606호
	(3) 11/21(토) 오전 7시	대기-601호
	(4) 11/21(토) 오후 7시 45분	

2010년도에 처음으로 임명받는 신임 서리집사에 대한 교육과 당회원 면접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집사로서의 사명과 제직회의 기능에 대해 배우고 교육이 끝난 후 당회원 면접이 즉시 실시된다. 내년도 신임 서리집사로 처음 임명을 받는 이들은 아래의 시간표를 참조하여 본인의 형편에 맞게 선택하여 교육과 면접 각 1회 참석하면 된다. 신임 서리집사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 되기를 기도한다.

# 계속되는 사명자 대회 부서별 행사

## 고등부 친구초청 찬양집회 / 11월 14일(토) 오후 5시 - 601호 · "많은 양을 찾아 주님 품으로"

고등부(부장 김진환 집사)는 전도와 고등부의 부흥을 위하여 친구들을 초청하여 찬양집회 행사를 한다. 말씀, 찬양의 시간, 뮤직비디오, 워십 댄스, 스킷드라마 등

의 프로그램이 있고, 원형 테이블에서 교제와 친교를 통하여 고등부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화요 정오 음악회



11월 10일(화) 정오 - 강민정 오르간 독주회(성공회대, 서울신대 강사,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독일 Detmold 국립음대 졸업(Diplom, Konzertexamen)  
현재, 성공회대, 서울신대 출강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 서울교회 홈페이지 월 방문자 134,638명 돌파!

## 방문자수 일평균 4,343명, 전월대비 12% 증가

서울교회 멀티미디어 봉사단(단장: 오정수 장로)에서는 지난 5월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사역자(최영철 선생, 7교구)를 채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역을 통해 홈페이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외부로 알리는데 주력한 결과, 지난달에는 134,638명이 본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는 매일 4,343명이 본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셈이다.

멀티미디어 봉사단은 단순히 '방문자수 상승'이라는 양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서비스 발굴을 통해 새로 선보인 'MP3 다운로드 서비스'와 'e-주보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언론에 비친 서울교회' 또한 홈페이지의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 매김하였다.

본 교회 성도들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e공동체' 메뉴를 통해서 부서별 커뮤니티를 만들고 성도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제2권사회 주관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 여성정장루치아노 최와공동으로 9일(월)-12일(목)

제2권사회(회장 이영자1 권사)는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한 여성정장 브랜드 루치아노 최와 공동으로 불우이웃 돕기(발달장애인) 자선 바자를 갖는다.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4일간 실시되며 백화점 상품권 기간 행사 5% 할인에 우리교회 성도들은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란다.

수험생을 위하여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재경 집사(3교구)



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관자는 여호와이심을 확신하며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매 주일 고등부 교사실에서 열리는 고등부 자녀를 위한 기도회(12:40~13:20, 604호)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며 감사하고, 회개와 간구로 많은 힘을 얻습니다. 올해 초 큰 아이가 재수를 하게 되었을 때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험생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기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씩씩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과 믿음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새벽제단에서 흘린 눈물은 내 평생에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였고 우리가정을 선택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맘 다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

지난 해 수능일에도 오전 8시 40분 시작 시간부터 수능이 끝나는 오후 6시 5분 까지 고등부 담당 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회 인도로 이어진 수능 기도회를 통해 수험생 학부모가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자녀들의 건강과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길 기도 하며, 아울러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어 초조한 시간을 오히려 평강과 위로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으므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판 길로 가지 맙시다.”

시명자의 기도



최영진 집사(제2스데반회 회장)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오신 주님! 한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무 쓸모 없는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시명자로 세워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내 속의 위선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게지고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많은 환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 만은 변치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 문화가 홍수를 이룬 그자리에 주님의 남은 그루터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한 없는 은총과 사랑에 빛진 자로서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다른, 내 속의 이중성을 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만 굳건하게 붙들고 사는 충직한 시명자로 남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 칭찬받는 시명자로 남고 싶습니다.

초대합니다-사랑부

## 천사들의 음악회

이강인 집사(사랑부 부장)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 님처럼 언제나 사랑부를 각별하게 아껴 주시는 성도님들께 저희 사랑부 교사들은 머리숙여 감사드릴 뿐입니다.

교회 설립과 더불어 개설된 사랑부는 그간 교회와 성도님들의 관심 속에 많은 발전을 하였고, 2006년부터는 사랑부 지체들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하여 특별활동반을 조직했고, 핸드벨, 워십, 난타, 벨플레이트, 기타, 멜로디언 등 총 6개 팀으로 40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세 번째로 11월 15일(주일)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천사들의 음악회'를 엽니다.

비록 가진 재능은 적고 약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힘을 얻도록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변에 사랑부 지체가 있다면 저희 음악회를 소개해 주시고, 초대하셔서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부의 오늘이 있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 주신 성도님들, 귀한 자녀들을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열린프로그램을 마치고- 사도행전반

## 여호와 낫시

김진 성도(13교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슴 한 켠에 몸살기운처럼 안고 살았던 숙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 환난과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았던 바울의 신앙, 갈 곳을 몰라 헤매던 영혼들의 회심, 예배를 통해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 회복, 혹독한 시련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 더 찬양하고 신뢰함, 그리고 고난의 와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담대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루디아(행16:14)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열어 사도바울의 사역에 활기를 넣고 빌립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된 사실을 배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물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공부하는 동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협력하며 섬겨주신 집사님들...

루디아의 마음을 열듯 한껏 마음을 선하게 열어준 집사님들의 보면서 성령님 의지하며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빌립, 바울, 바나바... 그 이름들을 대하며 그동안 게을렀던 나를 일으켜 세우며 열심히 공부했던 두 어 달! 그 짧은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정수길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낫시!

